

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동지 회중앙부	Publisher	Korean Dongji Hoi
발행소	931 노스킹 스트리트 호놀룰루 하와이	Address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리정근	President	Chung Kun Lee
주필	김창원	Editor	Donald C.W. Kim
전화	850-849	Telephone	850-849
발행호수	1726	Subscription	\$10.00 per year
발행일	음력 11월 29일	Issue No.	1726
	금요일	Date	January 17, 1969: Fri.

一九七〇년도 예산 지출액 천九백五十억 존슨대통령 국회에 제시

(워싱턴 1월15일 밤, 에이 피) 존슨대통령은 15일, 1970년 회계년도(1969년 7월1일부터 1970년 6월30일) 예산을 제출하였다. 이것에의하면, 내년도예산의 지출은 1천9백53억불로 금회계년도 예산보다 백15억불이 많다.

국방예산이 八백五十억불

이중 국방예산이 최대로 41%에 해당하는 8백15억불 (비에트남 전쟁비는 13%), 사회계획비 22% (이중 사회보장비 13%)로 되어 있다. 국방예산은 제체로서 5억불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에트남 전쟁비는 35억불 감소되고 있다. 예산의 증액분의 대부분은 국내의 사회계획에 쓰게 된다. 만일 10%의 부가세 계속이 승인된다면, 내년도예산은 35억불의 흑자가 될 것이다.

비에트남의 화평예측 밝다

존슨대통령의 최후의 년두고서

(워싱턴 15일 밤, 에이 피) 존슨대통령은 15일 오후 9시부터 국회사원양원합동 회의에 참석, 최후의 년두고서를 발표하였다. 대통령은 그 년두고서 중에서, 5년간의 존슨정권의 실적을 회고하면서 비에트남 화평의 예측이 밝은것을 말하는 동시에 10%의 부가세 계속을 권고, 내년도 예산을 명시하였다.

사회보장비 十三% 증액제안

대통령은 국내문제에서는 사회보장비의 13%로 증액을 제안, 외교문제에서는 핵병기 확산방지조약이 상원에서 속히 비준되기를 요청하였다. 최후로 존슨대통령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파적으로 협력해서 닉슨차기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할것을 요청, 전원이 기립하여 박수를 보내는중을 국회로부터 조용히 퇴장하였다. 년두고서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에트남 화평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것은 유감이나, 비에트남 화평의 예측은 4년전에 미군이 비에트남에 대규모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할 때, 어느대보다도 밝다. 북비에트남은 힘으로, 침략적 목적을 달성할수 없것을 깨달고 있다. 비에트남의 최종적 해결까지에는 아직 심한 전투가 계속될는지 모르나, 우리들은 공산주의자에는 굴복하지 않는다.

1. 상원은 핵병기 확산방지조약을 속히 비준하여야 한다. 또 미국과 소련은 공격용, 방어용 미사일의 제한에 관한 이야기를 재개하여야 한다.

(제2면에 계속)



(제1면으로부터 계속)

10% 부가세 연장을 요청

- 1. 10%부가세는 기한이 6월30일에 닳나는데, 그후에도 계속되어야한다. 10%부가세는 당면의 미국경제에 중요한것이다.
- 1. 사회복지비율 13% 증액할것을 제안한다. 이대문에 사회복지비는 인상되어야한다.
- 1. 내년도예산의 규모는 천9백53억불로 34억불의 흑자예산이된다.
- 1. 국회의원의 연봉을 3만불로부터 4만2천5백불로 인상할것을 제안한다.
- 1. 도로안전법의 실시와 총회기소지면허등록제를 입법화하기위해 3억불의 지출을 제안한다.
- 1. 저소득자들위해 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지안하면안된다. 이대문에 낮은 이자의 주택용 대부물한다. 도시개발은행을 설립할것을 권고한다.

10% 부가세의 계속을 부는씨 지지포명

(후로리다주 마이아미 15일밤, 에이 피) 후로리다주에 체재중인 니슨차기대통령은, 존슨대통령이 낸 두고서중에서 10%부가세의 계속을 제안한것에대해서 "필요한경우에는 이것을 지지한다" 라고 말하였다. 비에트남전쟁비의 필요가엄서지고, 경제적인 상황이 조악지면, 10%부가세는 속히 제외하여야한다. 그러나 부가세의 종결내지 감액이 정당화될것이 확신될때까지는 나는 부가세를 계속해야한다고하는 대통령의 제안을 지지한다.

인후레이손 억제가 필요

(워싱턴 1월16일밤, 에이피) 존슨대통령은 16일, 최후의 경제보고를 발표, "미국경제는 계속 번영할것으로 기대되는데, 인후레이손을 억제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것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였다. 동보고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같다.

- 1. 미국경제는 확대되고 이것이 이미 95개월이나 계속되고있다. 금후 또 확대가 계속될것으로 생각되는데, 미국경제에 큰 결함은 인금과 물가가 악순환에의해 상승하고 인후레이손이 진행하고 있는것이다. 인후레이손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이것은 니슨차기대통령에게 큰 일이 될것이다.
- 1. 또 미국경제에서는 (1) 세계통화위기의 해결 (2) 교육의 확충, 고용의 개선, 대기과 물의 오염방지 (3) 더많은 미국민에 번영을 준다 라는 큰문제를 가지고있는데, 이것도 신경부기 이루어야할 문제이다.

오기나와 예산 2천5천50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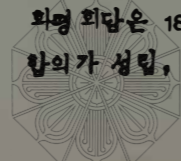
(워싱턴 16일밤, 에이 피) 15일발표된 미국의 1970년예산고서에서, 오기나외에대해서는 행정 관제비, 경제원조를 합해서 2천55만불의 지출권한이 요청되었다. 이중 원조액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푸라이스법에의한 한도내의 천7백50만불을 제상, 행정관제비는 3백15만불로되어있으며, 금년도실적추정보다 12만불 삭감되고있다.

파리 확대 화평회담

18일에 개시

(파리 1월16일밤, 에이 피) 레이볼의 형래를사코 개최가 치엄되고있는 파리의 비에트남 확대 화평 회담은 18일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미국, 북비에트남 양대표단은 16일, "레이볼의 형래에대하 합의가 성립, 미국, 북비에트남, 남비에트남, 민족해방전선의 4대표단이 파리에서 회담한다.

(제3면에 계속)



(제2면으로부터 계속)

국제센터에는 아무 표시도 없는 원형 레이블의 주위에 4개국대표단이 앉아서, 18일부터 회담을 시작한다. 대표단이 앉는 원형의 레이블은 서기가 앉는 두개의 장방형 레이블에 의해서 포위된다." 라고 발표하였다.

미국수석대표 해리먼씨는 "레이블의 형태에대한 해결은 어느쪽의 승리를 표시하는것이 아니다. 합의에 도달한 레이블의 형태는 어느 누가 제안한것이 아니다. 타협이 아니고, 회의에 출석하는 모든 당사자가 합의 될것으로서 결정함으로써, 모든 당사자는 이에 만족하고있다" 라고 말하였다. 또 해리먼대사는 "레이블의 형태에대해서 합의가 성립한것은 회담의 중요한 단계의 하나로, 신미국수석대표 랫지대사가 착임할때까지에는 회담이 실질적문제의 도의에 들어갈것도 가능하다" 라고 말하였다.

사이곤의 태도 불변

사이곤으로부터의 보도에의하면, 단 남비에트넴외상은 "회담은 여태까지 우리가 주장하여온대로 어디까지나 연합국측과 공산측의 2자 회담이다" 라고 말하였다. 소식통에의하면, 아무 표시도 없는 원형레이블을 두개의 장방형 레이블로 포위한다는것에 합의가 성립한것은, 이 형태라면 회담이 4자 회담이라고도 2자 회담이라고도 해석할수있기때문이라고한다. 여하튼 레이블의 형태가 합의를 본것에의해, 존슨대통령의 입기가 뜻하는 2일전에 겨우 확대 회담 회담이 개시하기로 되었다. 그러나 당분간은 수속문제로 시간을 잡고, 회담실현의 실질적인 도의가 시작되는것은 후일이 될것으로 보인다.

존슨대통령, 합의 성립을 칭찬

(워싱턴 16일 밤, 에이 피) 존슨대통령은 레이블의 형태에대한 합의가 성립, 확대 회담 회담이 18일부터 시작하게 된것을 칭찬, "비에트넴 회담실현에대한 실질적인 이야기가 시작될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또 대통령은 "작년 3월31일 북비에트넴 폭격을 정지한이래, 미국은 (1) 미국은 동남 아시아에서 확실한 목적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2) 미국은 참지 않으면 안된다. 회담 회담중에도 전후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3) 미국은 명예있는 회담이 가능하다고 자신을 가져야한다 라는 세계의 교훈을 받았다" 라고 말하였다.

화평회담을 진전시킬터, 누스 씨 달

(후도리다주 키.비스케이인 16일 밤, 에이 피) 키.비스케이인에서 유양중인 니슨차기대통령은 확대 회담 회담개최의 합의가 성립한것에대해서 "나는 열의와 목적을 가지고 회담 회담을 진행시킨다" 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미국 원자력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 폭발 화재로 사망, 사상자 대다수

(호노룰루 1월 15일 밤) 세계최대의 원자력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의 대화재에 의한 사상자의 수는, 사망자 24명, 행방불명 1명, 중경상자 약 85명으로 현재 발표되고있다. 어제아침 하와이 항만 남서 약 75마일의 해양상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엔터프라이즈호 (8만5천톤)의 손해는 막대하고 1기당 5백만불내지 7백만불의 함재기 15기가 완전히 파괴되고, 수기가 파손, 우부감판은 크게 손상되고, 손해액은 적어도 1억5천만불도 되어있다.

다행히 동함의 8개의 원자로에는 손해를 받지 않았다. 폭발 화재의 원인은 현재 엄밀히 조사중인데 믿을만한 보도에의하면, 췌트기중의 하나에 실은 폭탄이 더러져서 폭발한것이라고한다.

(제4면에 계속)



(제3편으로부터 계속)

최초의 폭발과 화재가 선비의 우라이드.덱에서 일어난것은 14일 오전 8시 19분, 갑판에는 가호오라 위도등을 목표토하는 폭격훈련때문에 제2대가 손후였다. 최초의 화재의 중심은 선비로부터 약 75척 더러진곳에잇는 폭격대의 1기 후렌쉽.젯트기라고 생각된다. 이비행기는 8시간에 날들 예정의 30기중의 하나였다. 엔터프라이즈호함장 켄트.리 대령에의하면, 최초의 폭발후, 차차로 타의 함재기에 불이부러, 오전 9시에 완전히 조정이되어 왼쪽소뢰한것은 11시 40분, 소뢰후 직시 진주만으로 기항하였다고한다. 동대령은 바람의 방향을보고, 직시 배의 위치를 변경시켜, 불이 옮기는 것을 막을려고하였는데, 계속해서 10회이상일어난 폭발은 맹렬하여, 여러사람이 폭풍으로 해중에 날려가고, 어느 사람은 화선으로 랄출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갔다. 갑판의 헤리콜터는 속히 날려 수중의 비행사들을 구출하였다. 소형원자력구축함 베인부릿지호와 구축함 스프드.드호가 엔터프라이즈를 호위하고잇서는데, 이 2함도 직시 구출작업을 개시하고, 한편 해양경비대도 해상수색을 위해 현장에 행하였다.

헤리콜터로 중상자를 병원으로 수송

해병대, 해군의 헤리콜터도 중상자를 트리푸러병원에 날려, 16명의 의사가 호도두루부터 보내와 함상에서 부상자의 치료에 활약하였다. 후부 함판에는 큰 구멍이 뚫리고, 한 엔터프라이즈호는 진주만에 오후 4시 15분에 입항하였다. 출항한사람들은 폭발시에 쫓 14기의 비행사와 2, 3천명의 일반인이며, 이중에는 5천4백명의 승무원의 친척, 친구들이 우인의 걱정을 하고잇는것이 보였다.

참상

진주만에 나타난 미국해군이 세계에 자랑하는 엔터프라이즈호의 두겹기 2인치나되는 강철제의 갑판은 폭발로 세계의 큰 구멍이 뚫리고, 아래 위로 뚫으러지고, 눈도 델수업는 참상, 구멍은 최대의 것은 약 15척기리와 20척 폭, 18척 기리와 18척폭, 하나는 아래 덩까지 뚫로잇으며, 시체가 그곳에서 만히 발견되었다.

고리승안박사. 부인인 후렌세스카여사 회신

친애하는 친구들에게
나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아름다운 카드, 축복의 말씀 그리고 선물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남편에게 충실하시든 당신들이 저를 기억해주신것에대해서 대단히 행복하고 기쁘게 생각하고잇습니다. 리박사가 살아계셨드라면, 여러분의 사료잇는선물에 저의감이 감사드렸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다다뜻한 우정은 고독한 저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지가 사랑하는 남편을 알은후 네번째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가족과같이 잇습니다만 돌아가신 남편생각을 만히 합니다. 여러분에 새해에 만은 축복이 잇스시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후렌세스카. 리

동지회호상부부원에 드리는 말씀

동지회호상부 건물이 완전히 매매가되기전까지는 호상부사무를 임시라도 누가 책임을 지고 회무계속을 하여야합니다. 동지회호상부원이신것들은 호상부가 계속하는 동안에는 년례금이나 적립금, 사망인이 나는경우에는 호상금을 잊지마시고 계속 필납하여야됩니다. 그리 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지회중앙부리사장 리 정 근

주말내정보단

년례금 10,00불씩	도항	김금연, 리민연, 홍어진, 서학서, 서대천, 리복이, 지덕수, 신기선
	릴리하	김오목, 황원태, 전수경, 리만엽
	도항	홍우순, 손노티, 위키아와, 윤수업
적립금 2.00불씩	도항	김금연, 리민연, 홍어진, 서학서, 서대천, 리복이, 지덕수, 신기선
	릴리하	김오목, 황원태, 전수명, 리만엽
	라나이	홍우순, 손노티, 위키아와, 윤수업
주보대금 10.00불	라나이	최봉조 (1968년도)

